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 분석 및 시범사업 효과 연구*

김은설¹⁾

요약

본 연구는 그간 소외되어 온 산간, 도서 벽지의 소수 영유아에게도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의 수요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와 효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바를 논의하였다.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필요지역은 전국 20개군 내 31개면으로 결과가 도출되었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영유아, 그리고 차량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 유아보다는 영아중심 시설 운영이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우선 설치 필요 지역

I. 서론

농어촌 가정의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가정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차등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농어촌 다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

*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의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임.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또한 적은 아동 수와 장거리 차량운행 등의 문제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농어촌 보육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보육통계(2009)에 따르면, 보육시설 정원 중 민간 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전국기준 54.7%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은 51.3%로 낮고, 가정보육시설 정원도 전국 18.9%인데 비해 농어촌은 11.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공립과 법인, 법외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정원비율은 전국 기준 24.6%이나 농어촌은 36.7%에 달하고 있다. 즉, 농어촌은 아동 인구의 감소와 주거지역의 산재(散在)로 인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운영 부담을 느껴 사업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이 비율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국공립시설은 접근성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시설당 평균정원의 통계(서문희 외, 2009)를 보면 대도시는 49.32명, 중소도시는 45.26명이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는 57.06명으로 농어촌에서 보육시설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대규모 시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수요를 수용하는 범위가 크다는 것이고 수요자측에서 보면 이동거리가 멀다는 뜻이 된다. 즉 거주지 가까이에서 이용 가능한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 등은 통계상 볼 때 특히 수가 적고, 대규모 시설의 보육수요 수용 범위가 넓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산간지역의 경우 보육 접근성은 0에 가깝다. 즉, 국공립 또는 법인 시설이 농어촌에 있지만 이들도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치우쳐 있고 읍·면 소재지에서 먼 산간이나 도서, 벽지 지역에서는 수요가 있더라도 보육시설 이용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국공립 보육시설이 농어촌 지역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의 설치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만 농어촌의 지형적 특성상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외지역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동등하고 보편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아동의 보육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문희 등(2006)은 읍이나 면 소재지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차량운행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산간지역은 보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거리가 멀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는 응답이 23.9%로 조사되었고 농어촌의 경우 차량이 여러 개의 넓은 면지역(최대 5개

면)을 한꺼번에 운행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최대 편도 90분까지 차량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농어촌지역 차량운행 1일 평균 거리는 109.8km, 읍지역은 98.3km, 면지역은 120.1km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산간, 도서, 벽지 지역에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특히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저소득층 조손가정 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도 강조되어야 한다. 농어촌, 특히 산간지방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해체 및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가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적 지원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김은설 외, 2007), 이는 범국가적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Crew, B. J., 2005; Calhoun, S, Olfert, M.R., & Tsetso, K., 2005).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경우 특히 정상적 언어발달과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조손가정 자녀도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적 수준이 보장된 보육시설에 다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 조부모 등이 모두 일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기존 보육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같이 산간, 도서, 벽지를 포함하는 농어촌의 특수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하는 필요성에서 보건복지부는 「농어촌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초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은 기존 보육시설에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이나 벽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 수요가 있는 곳을 발굴하여 국공립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민의 보육서비스 수요와 영유아의 보육, 교육적 권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이란 상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작은 규모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시범사업에 속했던 1차년도의 사업 참여 지역은 6개 시·도의 9개 면²⁾으로, 각 면별로 1개씩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군청이 중심이 되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산은 국고에서 각 88,000천원이 지원되었고 지자체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2010년 4월 현재, 총 6개의 소규모 보육시설(3개 예정)에서 15명의 보육교사를 채

2)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1차년도 사업(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인천시 강화군, 강원도 화천군,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경주시 등 9개 시·군이다.

용하여 71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 사업은 지속 가능 사업으로 평가되어 연간 1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 지속에 필요한 요건인 설치 수요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 연구로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농어촌 맞춤형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를,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 부모와 운영 의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정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함께 1차년도 시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신설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 차원의 지원에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어촌지역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가?

<연구문제 2>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개선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지역 보육담당 공무원과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현재 시범 설치된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 효과 설문 조사이다. 따라서 설치 필요지역 부모와 공무원, 현재 이용 중인 부모 집단 등 총 3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1.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 조사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는 이해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영유아의 부모와 지역 보육담당 공무원 등 두 집단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가. 영유아 부모 조사

먼저 전국 군지역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대상 지역을 표집하고 지역별로 대상 부모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역 선정을 위해 기존 연구(신나리 외, 2009; 서문희 외, 2008)에 의거하여, 영유아인구 60명 이하이며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인 221개 면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러한 면이 4개 이상 속하는 군을 확인하여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최종 10개 군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해당 면 중 영유아 인구가 많은 6~8개 행정리를 선정하고 각 마을(리)당 1~2명의 영유아기 자녀 부모를 표집하였다. 이 때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의 의견을 들어 가구 선정에 참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요조사 참여자는 전국 10개군 54개 면(面) 주민 총 352명(345개 行政里 포함)이 표집되었다.

조사의 특징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즉 직접 수요자의 이용 의향을 조사하였다는 점과 가정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응답을 받음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조사 결과를 생산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마을(리) 단위로 1명씩을 표집하여 전체 면의 수요를 계산하였다는 점 등이다. 물론 면의 모든 리를 방문,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숫자는 최소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부모 대상 읍·면 단위 수요조사에 참여한 지역과 참여 인원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 및 마을 특성,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여부와 이용 예상 영유아수 등에 관한 질문이다.

<표 1> 주민 대상 농어촌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수요조사 참여 지역

도	군 및 읍·면	참여자(명)
충북	보은군(내북면, 산외면, 속리산면, 장안면,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46
충남	서천군(기산면, 마산면, 문산면)	17
전북	임실군(강진면, 덕치면, 삼계면, 성수면, 신덕면, 신평면, 지사면, 청웅면)	56
전남	곡성군(고달면, 목사동면, 오산면, 죽곡면)	26
	보성군(검백면, 노동면, 문덕면, 미력면, 웅치면)	36
경북	김천시(감천면, 대덕면, 부항면, 증산면)	24
	상주시(내서면, 외남면, 은척면, 중동면, 화남면, 화북면)	40
	영덕군(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27
경남	창녕군(계성면, 길곡면, 성산면, 유어면, 이방면, 장마면)	36
	합천군(대양면, 덕곡면, 묘산면, 봉산면, 쌍백면, 쌍책면, 청덕면)	44
계	총 10개 군 54개 면	352

나. 지역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본 조사는 부모 대상 조사와 목적이 유사하지만, 주민이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군 지역 보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 설치 의향을 알아보고자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요자의 필요성 인식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자의 의식이 함께 분석되었을 때 사업의 우선 실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다시 실시한 바, 전국 87개 군청 국공립보육시설 담당 공무원 전수에게 설문지를 보냈으며 응답은 52명으로부터 받았다. 이들에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지역이 있는지, 설치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조사와 공무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아는 읍·면 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책 시행자인 군 공무원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우선 설치 필요지역에 대한 수요 분석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였다. 공무원 조사에 참여한 지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육담당 공무원 대상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조사 참여 지역

시·도	군
인천광역시	강화
울산광역시	울주
경기도	양평, 여주, 가평
강원도	영월, 고성, 평창, 정선, 양주, 횡성, 인제
충청북도	증평, 음성, 청원, 단양, 진천
충청남도	금산, 연기
전라북도	무주, 완주, 순창, 부안
전라남도	영암, 영광, 신안, 진도, 완도, 담양, 고흥, 강진, 구례, 장흥, 화순, 함평
경상북도	울진, 의성, 봉화, 칠곡, 청송, 성주, 청도, 영양, 예천, 군위
경상남도	하동, 고성, 함양, 함안, 거창, 의령, 산청
총 10개 시·도	총 52개 군

2.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세 번째의 설문조사는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이 시범으로 설치된 지역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후 영유아의 변화,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것이다. 시설 선택이유와 이용 이후 자녀가 달라진 점, 만족도 등을 질문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타당도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확인하였다. 설문 실시

방법은 아동 편에 설문지를 송달하고 수신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이용을 하고 있는 영유아 전수인 71명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보건복지부 소규모 보육시설 시범사업 2009년 4월 현재 해당 지역은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강원도 화천군, 경상북도 안동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6개 군지역이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내용

구분	설문내용	시범사업 해당 지역
아동특성	생년월일, 성별, 기관이용 경험, 기관 미이용 이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화천군
부모·가정 특성	부모연령, 국적, 학력, 직업, 가구구성, 월소득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안동시
시설 이용 현황	선택이유, 이용시간, 만족도, 자녀변화, 향후 이용계획, 발전위한 필요사항, 건의사항 및 개선점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III. 결과 및 해석

1. 농어촌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필요 지역

우선 설치 필요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영유아 부모대상 조사에서, 먼저 영유아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전체 352개 마을에 대해, 각 마을(리,里)당 가구 수는 평균 44.2(SD=28.07)가구였고, 30대까지의 젊은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수는 평균 4(SD=3.43)가구, 리당 미취학 영유아 수는 평균 3.7(SD=2.03)명이었다. 영유아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북 영덕군, 경남 창녕군, 전남 곡성군, 경북 상주시로 나타났다.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는 평균 2.2(SD=1.67)명이었으며, 기관 이용 아동수가 2명 미만 지역은 전남 보성군, 경북 김천시, 경북 영덕군 등이었다(표 4 참조).

마을에서 보육시설까지 거리가 멀어서 다니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균 11.4%정도가 해당 영유아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때 마을 당 평균 2.1명 정도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북 상주시(30.0%), 경북 영덕군(22.2%), 충북 보은군(28.3%)이 이동거리가 멀어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표 4> 지역내 리(里)당 가구 및 아동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군명(리 수)	리당 가구수		리당 부모 30세 이하 가구수		리당 미취학아동수		리당 기관이용 아동수	
	M	SD	M	SD	M	SD	M	SD
충북 보은군 (46)	35.8	21.37	2.7	1.23	3.5	1.76	2.0	1.73
충남 서천군 (17)	40.0	14.77	3.1	1.14	3.6	1.87	2.0	1.41
전북 임실군 (56)	52.9	37.96	4.1	2.59	3.6	1.70	2.6	1.43
전남 곡성군 (26)	54.5	20.57	7.0	5.70	4.1	2.30	2.4	1.63
전남 보성군 (36)	40.6	25.33	3.0	1.77	3.5	1.95	1.9	1.66
경북 김천시 (24)	37.3	22.16	3.2	2.68	2.9	2.33	1.4	1.32
경북 상주시 (40)	29.4	10.65	3.4	1.79	4.0	1.99	2.3	1.88
경북 영덕군 (27)	65.6	46.74	3.7	1.94	4.5	2.24	1.9	1.41
경남 창녕군 (36)	42.1	15.97	5.6	3.09	4.3	2.26	3.2	1.75
경남 합천군 (44)	46.3	24.25	4.5	5.92	2.9	1.93	2.0	1.76
전체 (352)	44.2	28.07	4.0	3.43	3.7	2.03	2.2	1.67

<표 5> 이동거리가 멀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 수

군명(리 수)	거리상 시설 미이용 아동 유무(%)			리당 아동수(명)	
	있다	없다	계	M	SD
충북 보은군 (46)	28.3	71.7	100.0	2.3	1.11
충남 서천군 (17)	17.6	82.4	100.0	2.3	0.58
전북 임실군 (56)	1.8	98.2	100.0	1.0	0.00
전남 곡성군 (26)	0.0	100.0	100.0	0.0	0.00
전남 보성군 (36)	8.3	91.7	100.0	2.0	1.73
경북 김천시 (24)	4.2	95.8	100.0	1.0	0.00
경북 상주시 (40)	30.0	70.0	100.0	2.0	1.60
경북 영덕군 (27)	22.2	77.8	100.0	2.2	0.98
경남 창녕군 (36)	2.8	97.2	100.0	2.0	0.00
경남 합천군 (44)	0.0	100.0	100.0	0.0	0.00
계 (352)	11.4	88.6	100.0	2.1	1.22

다음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주민에게 질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75.9%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그 중 50%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별로 필요치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며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군지역으로는 영덕(70.4%), 보성(52.8%), 상주(50.0%), 보은(43.5%), 곡성(42.3%), 김천(41.7%)의 순으로 나타나, 경북이 3개 군, 전남이 2개 군, 그리고 충북 1개 군에서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표 6> 영유아 부모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	조금 필요	거의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사례수)
충북 보은군	43.5	30.4	15.2	10.9	100.0 (46)
충남 서천군	29.4	47.1	5.9	17.6	100.0 (17)
전북 임실군	7.1	75.0	14.3	3.6	100.0 (56)
전남 곡성군	42.3	11.5	46.2	0.0	100.0 (26)
전남 보성군	52.8	13.9	27.8	5.6	100.0 (36)
경북 김천시	41.7	37.5	12.5	8.3	100.0 (24)
경북 상주시	50.0	17.5	15.0	17.5	100.0 (40)
경북 영덕군	70.4	25.9	3.7	0.0	100.0 (27)
경남 창녕군	2.8	80.6	16.7	0.0	100.0 (36)
경남 합천군	38.6	40.9	18.2	2.3	100.0 (44)
계	37.9	38.0	17.6	6.5	100.0 (352)

다음으로는 조사한 결과를 면단위로 묶어 가능한 이용자 수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면당 시설 이용 가능자 수가 최소 12.0명에서 최대 34.3명까지로 나왔으며, 이 중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찬성하는 의견이 100%로 나왔거나 이용 예상 영유아 수가 25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면지역을 우선 설치 필요지역으로 구분하고 면을 확인한 결과, 총 19개면 124개 리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중 이용 의향이 높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전북 임실군 덕치면, 전남 보성군 문덕면, 경북 영덕군 달산면, 지품면, 그리고 경남 창녕군 유어면과 합천군 묘산면을 보면, 이들이 가장 필요성이 높으면서 예상 이용 영유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지역으로 경북 김천시 증산면이 포함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8개 면 지역(표 7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단위 보육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51명의 공무원 중 지역내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고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15명으로, 이 중 2009년 시범설치 사업 대상에 기 포함된 5개 지역을 제외하면 총 10개 군(郡)으로 볼 수 있다. 즉, 강원도의 정선군과 횡성군, 전라북도의 무주, 완주, 순창, 부안,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 함평군, 경상남도의 고성, 의령 군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영유아 부모의 수요에 따른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필요 읍·면

도명	군명	읍면명	해당 리 수(개)	필요성 인식률(%)	예상 이용 영유아 수(명)	이용의향(%)
충북	보은	회인	7	100.0	25.9	100.0
충남	서천	마산	6	100.0	13.2	100.0
전북	임실	청웅	7	100.0	16.8	100.0
		성수	7	100.0	16.1	100.0
전남	곡성	덕치	7	100.0	30.1	100.0
		오산	6	66.7	25.2	83.3
		노동	6	50.0	28.2	83.3
경북	보성	문덕	8	87.5	32.8	100.0
		김천	6	100.0	27.0	100.0
		상주	7	57.1	28.0	85.7
		영덕	7	100.0	34.3	85.7
경남	영덕	지품	7	100.0	28.7	85.7
		창수	6	100.0	19.2	100.0
		창녕	6	100.0	16.2	100.0
		유어	6	100.0	24.0	100.0
		계성	6	100.0	13.8	83.3
		길곡	6	100.0	12.0	100.0
합천	합천	묘산	7	100.0	25.9	100.0
		쌍백	6	100.0	16.8	100.0
계	10개 군	19개면	124	92.7	22.9	95.1

<표 8> 군청 보육담당자가 본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필요 지역

도명	군명	읍·면명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횡성군	갑천면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부남면
	완주군	동상면
	순창군	- (구체적 응답 없음)
	부안군	주산면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남양면
	함평군	- (구체적 응답 없음)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의령군	- (구체적 응답 없음)
전체	총 10개 군	최소 12개 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표 7)와 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 8)의 결과를 총합하여 어느 한 쪽이라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을 포함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읍면지역은 총 20개군 최소 31개 면지역이었다. 여기에는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포함되며, 시지역과 경기도, 제주도는 수요가 없어 제외되었다. 7개 도 중에서도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수요를 보였으므로 이들 지역의 산간지방 등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이 충분하지 못함을 추측케 한다. <표 9>는 이 같은 최종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 필요 군 및 읍·면

도명	군명(읍·면명)		필요 면 수
강원도	정선군(화암면)	횡성군(갑천면)	2
충청북도	보은군(회인면)		1
충청남도	서천군(마산면)		1
전라북도	무주군(적상면, 부남면)	부안군(주산면) 순창군(-)	8이상
	완주군(동상면)	임실군(청웅면, 성수면, 덕치면)	
전라남도	고흥군(동일면, 남양면)	곡성군(오산면)	5이상
	함평군(-)	보성군(노동면, 문덕면)	
경상북도	김천시(중산면)	영덕군(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5
	상주시(화남면)		
경상남도	고성군(상리면)	창녕군(성산면, 유어면, 계성면, 길곡면)	7이상
	의령군(-)	합천군(묘산면, 쌍백면)	
계	총 20개 군		(최소 31개 면)

2.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가. 부모 특성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사업 시범 지역인 6개 군 모두에서 조사한 후 부모 특성과 가구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부와 모 중 한 쪽이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응답한 66가정 중 13가정: 19.7%), 다문화가정도 많았다(응답 68가정 중 24가정: 35.3%). 학력은 부모 총 118명 응답자 중 70명이 고졸로 59.3%에 해당하며, 직업은 부의 경우 30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57.7%), 모의 경우는 전업주부라고 응답한 수가 28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표 10>은 응답 부

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특성

단위: 명

구분	의성		금산		함양		강화		화천		안동		전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연령	20대	-	5	1	1	-	5	-	1	1	1	1	-	2	2	15
	30대	4	6	4	9	7	9	6	6	5	9	5	6	31	45	
	40대	5	2	5	-	5	3	1	1	1	-	2	-	19	6	
	50대이상	1	-	-	-	-	-	-	-	-	-	-	-	1	-	
	계	10	13	10	10	12	17	7	8	7	10	7	8	53	66	
국적	한국	10	3	10	7	15	12	7	8	7	10	8	4	57	44	
	베트남	-	9	-	4	-	4	-	-	-	-	-	5	-	22	
	필리핀	-	-	-	-	-	-	-	-	-	-	-	1	-	1	
	기타	-	1	-	-	-	-	-	-	-	-	-	-	-	1	
	계	10	13	10	11	15	16	7	8	7	10	8	10	57	68	
학력	중졸이하	1	6	1	3	1	2	-	1	-	-	-	1	3	12	
	고졸	6	4	7	4	10	12	4	1	3	7	6	6	36	34	
	초대졸이상	3	2	3	3	3	-	3	6	4	3	1	2	17	16	
	계	10	12	11	10	14	14	7	8	7	10	7	9	56	62	
직업	농어업등	8	7	6	2	8	5	2	-	-	-	6	5	30	19	
	판매·서비스직	-	1	-	-	-	-	1	1	-	-	-	1	1	3	
	사무기술직	-	1	2	1	2	1	-	-	2	-	-	-	6	3	
	자영업	-	-	-	-	2	2	3	2	-	1	-	-	5	5	
	운수업	-	-	-	-	-	-	-	-	1	-	-	-	1	-	
	기능·숙련공	1	1	-	1	-	1	-	-	-	-	-	-	1	3	
	전업주부,무직	-	3	-	6	-	4	-	3	-	9	-	3	-	28	
	기타(군인 등)	1	-	2	-	1	1	1	2	5	-	-	-	10	3	
	계	10	13	8	10	13	14	7	8	8	10	6	9	54	64	

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

소규모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지역별로 모두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그간 교육적, 보육적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점을 보상받고자 하는 산간·농촌 지역 부모의 동기가 나타나고 있다.

<표 11>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의 선택 이유

단위: %(사례수)

지역	자녀 교육위해	친구 사귀도록	부모가 일을 해서	기존시설 거리 멀	기존시설 싫어함	기타	계
의성	40.0(6)	33.3(5)	26.7(4)	-	-	-	100.0(15)
금산	36.4(4)	9.1(1)	27.3(3)	18.2(2)	9.1(1)	-	100.0(11)
함양	41.2(7)	23.5(4)	35.3(6)	-	-	5.9(1)	100.0(17)
강화	25.0(2)	25.0(2)	50.0(4)	-	-	-	100.0(8)
화천	10.0(1)	80.0(8)	-	-	-	10.0(1)	100.0(10)
안동	70.0(7)	20.0(2)	-	-	-	10.0(1)	100.0(10)
계	38.0(27)	31.0(22)	23.9(17)	2.8(2)	1.4(1)	3.2(3)	100.0(71)

다. 이용 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인 47.9%가 평일(월-금)에만 8시간 미만으로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시간 이상이용은 21.1%였다. 전체의 30%정도는 토요일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인 가족이 많은 화천의 경우는 100% 평일에만 이용하고 있었고, 농업인구가 많고 가구소득이 낮았던 함양의 경우는 70%정도가 토요일까지 매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명)

지역	월-금 하루 8시간미만	월-금 하루 8시간이상	월-토 하루 8시간미만	월-토 하루 8시간이상	계
의성	13.3(2)	40.0(6)	26.7(4)	20.0(3)	100.0(15)
금산	63.6(7)	36.4(4)	-	-	100.0(11)
함양	17.6(3)	11.8(2)	52.9(9)	17.6(3)	100.0(17)
강화	37.5(3)	25.0(2)	37.5(3)	-	100.0(8)
화천	100.0(10)	-	-	-	100.0(10)
안동	90.0(9)	10.0(1)	-	-	100.0(10)
계	47.9(34)	21.1(15)	22.5(16)	8.5(6)	100.0(71)

라.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이후 자녀 변화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후 자녀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말이 많아져서 가족들과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응

답하였다. 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거나 식사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고, 친구가 생겼으며, 표정이 밝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자녀들의 사회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이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단위: 명

지역	대화량	식사 태도	독서	신체 건강	숙면	친구 생김	밝은 표정	양치, 세수	외모 관심	피곤 해함	기타	계
의성	5	3	1	1	-	2	2	1	-	-	-	15
금산	5	2	-	1	1	-	1	-	1	-	-	11
함양	6	4	1	1	-	1	2	-	-	-	2	17
강화	2	1	-	-	2	1	1	-	-	1	-	8
화천	2	-	-	-	2	1	1	1	-	2	1	10
안동	1	4	2	-	2	1	-	-	-	-	-	10
계	21	14	4	3	7	6	7	2	1	3	3	71
%	29.6	19.7	5.6	4.2	9.9	8.5	9.9	2.8	1.4	4.2	3.2	100.0

마. 이용 만족도

부모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을 보이는 부분은 주변환경이나 차량운행 등 설치 위치상의 문제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일부 지역의 특정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큰 불만족을 보이지 않았다(표 14 참조).

<표 14>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집과의 거리	47.9	40.8	7.0	1.4	100.0(71)
원장 및 교사	67.6	31.0	1.4	0	100.0(71)
시설·설비 위생	58.6	40.0	1.4	0	100.0(70)
급식과 간식	57.7	42.2	0	0	100.0(71)
비용(보육료 등)	34.3	54.3	11.4	0	100.0(70)
보육프로그램	50.0	50.0	0	0	100.0(68)
운영시간	44.1	54.4	1.5	0	100.0(68)
주변 환경	25.4	40.8	32.4	1.4	100.0(71)
차량운행	42.6	36.8	21.4	1.2	100.0(68)
시설의 안전성	45.1	46.5	8.5	0	100.0(71)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원장 및 교사 등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매우 만족 67.6%), 시설·설비 위생, 급식과 간식 등 건강·영양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료 등 비용이나 집과의 거리, 운영시간 등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가 갖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바. 향후 이용 계획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의성과 금산, 함양, 화천은 모두 절반 이상이 앞으로 계속 보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함양과 강화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금산에서는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는 응답이 1/3정도 되었다. 특히 안동은 50%가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모두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이 4-5세 유아가 되기 전까지는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지만 4-5년 이후에는 보다 큰 규모 시설이나 유치원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보육시설은 유아보다는 영아기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으며, 향후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원아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표 15 참조).

<표 15>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계획

단위: %(명)

지역	앞으로 계속 보낼 계획임	규모가 큰 어린이집 보낼 계획임	유치원에 보낼 계획임	잘 모르겠음	계
의성	73.3(11)	6.7(1)	13.3(2)	6.7(1)	100.0(15)
금산	54.5(6)	-	36.4(4)	9.1(1)	100.0(11)
함양	52.9(9)	-	35.3(6)	11.8(2)	100.0(17)
강화	37.5()	-	62.5(5)	-	100.0(8)
화천	70.0(7)	-	30.0(3)	-	100.0(10)
안동	30.0(3)	-	50.0(5)	20.0(2)	100.0(10)
계	54.9(39)	1.4(1)	35.2(25)	8.5(6)	100.0(71)

사. 개선 요구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해본 결과 모든 소규모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외부 강사를 이용한 특별활동은 운영하기 실제로 교사가 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반면 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요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오히려 클 수 있으므로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한편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6> 소규모 보육시설 개선 필요사항

단위: %(명)

지역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부모의 적극적 관심/참여	우수한 시설·설비	우수한 교사유치	교사 대 아동수 비율	계
의성	53.3(8)	26.7(4)	6.7(1)	6.7(1)	6.7(1)	100.0(15)
금산	54.5(6)	9.1(1)	18.2(2)	9.1(1)	9.1(1)	100.0(11)
함양	47.1(8)	11.8(2)	5.9(1)	23.5(4)	11.8(2)	100.0(17)
강화	75.0(6)	-	12.5(1)	-	12.5(1)	100.0(8)
화천	50.0(5)	-	-	-	50.0(5)	100.0(10)
안동	60.0(6)	20.0(2)	20.0(2)	-	-	100.0(10)
계	54.9(39)	12.7(9)	9.9(7)	8.5(6)	14.1(10)	100.0(7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 수가 많지 않으나 수요가 존재하는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입지를 고려하여 설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 조사를 통해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행태와 만족도를 알아보고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의 2개 면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20개 군 31개면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면은 이용하고자하는 수요자가 25명이 넘고 주변에 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본 연구는 주민 대상 조사와 지역 공무원 대상 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역을 군단위뿐 아니라 면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부 사업의 지속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범 설치된 6개 소규모 보육시설의 이용자를 조사해 보면, 시설 이용 이후 영유아들은 대화량이 많아지고 식사태도가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보고가 많았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이러한 반응은 향후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한다. 그러나 몇 가지 드러난 지적은 고려해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소규모 보육시설이 보다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크다.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농어촌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산간·벽지이므로 교육적, 보육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갈증이 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나 예체능 교육 등 특별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육 아동의 수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20인 미만의 소수이므로, 이들만을 위한 특별활동 강사 채용은 재정상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나 재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특별활동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거리상 떨어져 있더라도 지역의 규모가 큰 다른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이동식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영유아에 대해 과도한 특별활동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 기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규모 보육시설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두드러진 변화는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사실이고,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기존 연구(김은설 외, 2007)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은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화적 마찰이 중복으로 영향을 미쳐 영유아 아동의 언어발달과 기본생활습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 중 35.3%가 다문화 가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 현황 통계(행정안전부, 2010)의 영유아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소규모 보육시설이 보육수요는 있으나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설된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보육시설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언어 등 다문화 아동 지도를 위한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차량운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범 6개 지역 중 경북 의성군에서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차량을 운행 중이다. 이들 차량은 시설 운영비의 일부로 할부 구입한 경우도 있고 차체를 기부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온전히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이 위치한 곳은 산간 또는 도서 지역으로, 비록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였다고 하나 마을간 절대 거리가 멀어도 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농어촌 차량 유류비 지원이 있으나 차량 마련에 필요한 지원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때 안전 장비와 지원 인력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함께 요구된다.

본 연구의 조사에 근거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향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요조사에 따르면, 현재 최소 31개 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 우선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해당 영유아 수 25명이 넘는 곳이며 일부는 지역 공무원들이 설치, 운영할 의지를 보인 곳이다. 소규모 보육시설을 오지 외딴 마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마을에 설치하여 4-5개 인근 마을로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아동 수급이나 교사 수급 면에서 전망이 밝고 위험부담이 적다. 기존의 농어촌 국공립에 비해 설치비용이 적고 아동 인구 감소에 덜 민감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 보육에 중점을 두어 출산율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언어발달이나 문화에서 실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이므로 새로이 단독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 기존의 건물 일부를 수리,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기존 시설들에 비해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없고 기존 국공립과도 멀리 떨어진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민간 시설은 수익을 생각하면 아예 진입을 고려치 않는 곳이므로 소규모라는 새로운 형태만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농촌형 보육시설로서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설·이윤진·최진·조혜주(2010).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은설·박수연·유용상·오병욱·김형은(2008). **BTL 방식의 보육시설 설치방안연구**. 기획재정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2009).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연구소(2010). **출산과 육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육아정책홍보 리플렛
-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현황**.
- Calhoun, S., Olfert, M. R., & Tsetso, K. (2005). *Canada's new national childcare program: Ensuring the rural message is heard*. Canadian Rural Partnership: Advisory Committee on Rural Issues
- Crew, B. J. (2005). *Rural child care needs*. a paper on the web of the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 (http://www.ofa.on.ca/cuttting/hi1_03.jpg).

· 논문접수 2011년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6월 20일 / 게재 승인 6월 24일

· 교신저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메일 eskim@kicce.re.kr

Abstract

An analysis of demand on small-sized public childcare facilities in rural areas and effects of the pilot project

Kim, Euns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policy of "Building Small-sized Childcare facilities in Rural areas(BSCR)", which i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l-fare in Korea. In this study, we pursued two research questions: where should be the small-sized childcare facilities built first?; how did children come to be changed after they had a chance to get the childcare programs at the small-sized facilities and what are their parents demand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small-sized childcare facilities should be built in 31 areas in 20 counties first. The parents of the children enrolled in the small-sized facilities reported their childrens' positive changes including talking more with parents, eating right, making friends, and so on. Also they want that the small-sized facilities provide the young children with more extra-curriculum activities such as English and art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project of BSCR will work better in the future if it focuses on caring young children under age 2,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budget for shuttles and some extra-curriculum activities.

key words: young children in rural areas, small-sized childcare facilities